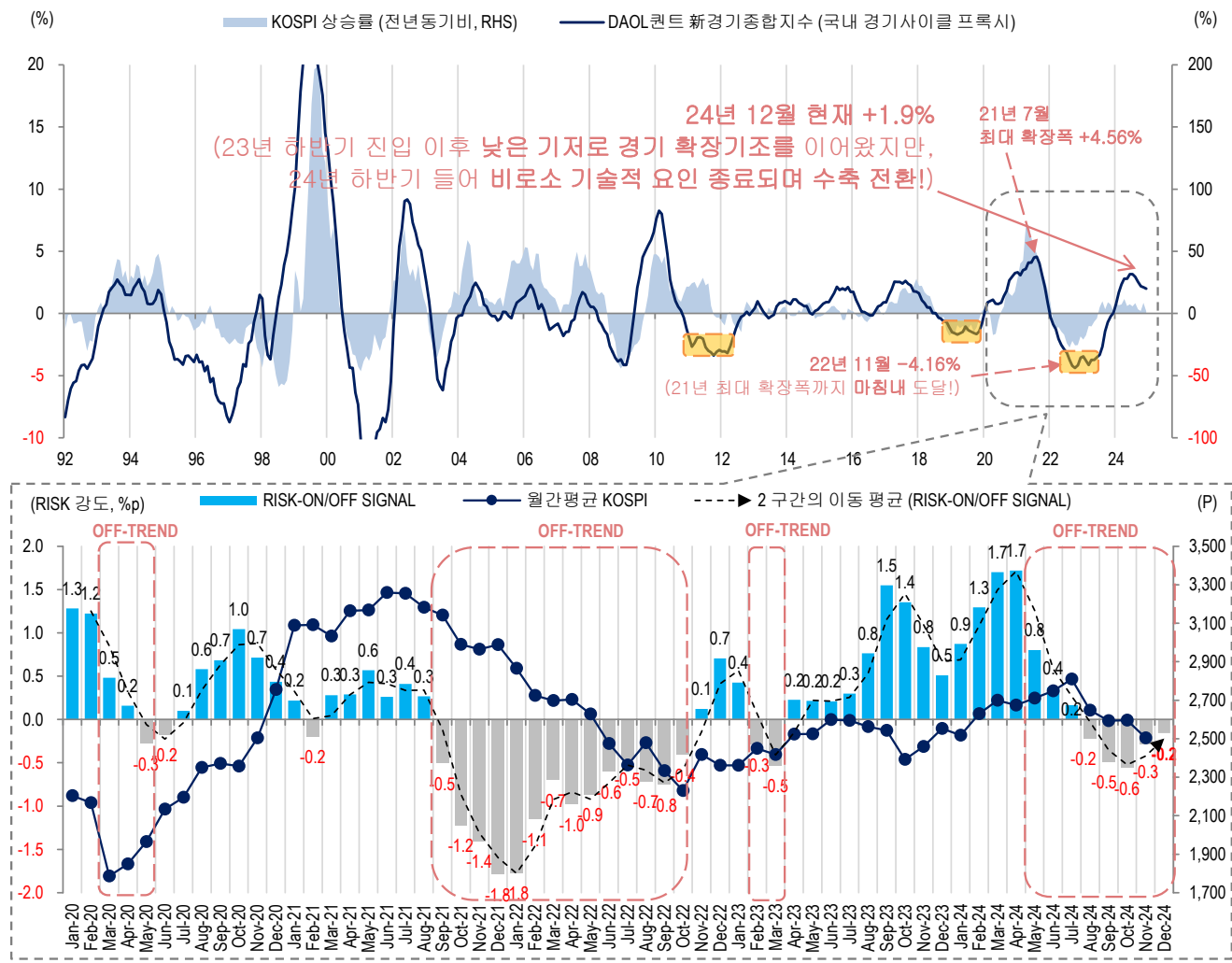




의외로 2개월 연속 완화 중인 OFF 시그널



Source: 통계청, DAOL투자증권

- 국내 경기 사이클은 작년 하반기부터 연이은 확장기조를 이어오다 올해 5월을 기점으로 추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수축 사이클로 전환. 이번 12월 RISK-OFF 강도는 지난 기존 예상과는 다르게 11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완화 중
- 다만,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수축기조는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며 이는 곧, 국내 증시의 상방을 제한하는 부담요소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아진 상황 (e.g. 홍보하며 버티는 증시와 추락하는 경기와의 "디커플링"은 결국 더 높은 변동성을 의미)
- KOSPI의 상방은 이러한 펀더멘털 부재로 제한적인 반면, 하방은 국내 밸류에이션상락바텀인 2,450P에서 지지하는 순환매장 지속 예상. 결론적으로 향후 경기 기초체력의 점진적 둔화는 불가피한 가운데, 주식전략 차원에서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유틸리티, 통신과 같은 성장주 또는 방어주 컨셉을 띄는 "NON-CYCLICAL DEFENSIVE" 업종 유망 시각 유지